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 개최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가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

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랍사르 습지도시'란 랍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랍사르 협약이 인증하는 제도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 운곡습지' 브랜드 가치 향상 집중

운곡습지생태관광협 워크숍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가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 교육과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등 운곡습지 보전

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을 비롯해 6개 마을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랍사르 습지도시'란 랍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랍사르 협약이 인증하는 제도로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관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랍사르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

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내년 7월 5곳의 후보지 중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랍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6개 기준(▲랍사르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정보센터 설립 ▲지역관리위원회 설립)을 충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2500만원을 들여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1@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연의 가치, 내고장의 미래

고창,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 발굴 워크숍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 매산, 송암, 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 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 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하는 제도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6개 기준(△람사르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 교육/정보센터 설립 △지역관리위원회 설립)을 충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2500만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관련 주민인식교육-실천규약 논의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는 지난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 및 6개 마을간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6개 기준(△람사르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복원 및 관리방안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정보센터 설립 △지역관리위원회 설립)을 충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고창운곡습지 '람사르 도시' 인증 고삐

생태계서비스 발굴 워크숍 등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재결음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하는 제도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관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해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6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2,500만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라매일

2016년 04월 15일 금요일
009면 지역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 개최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가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랍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랍사르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7월 5곳의 후보지 중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동현 기자

2016년 04월 15일 금요일
010면 지역

고창 '운곡습지...' 발굴 워크숍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가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랍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랍사르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고창소식]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 발굴 워크숍 등

【고창=뉴스시스】김종호 기자 = ◇군,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 발굴 워크숍 개최

전북 고창군이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와 함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은 14일 석정웰파크시티에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교육이 진행됐고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등을 비롯해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의 내용 등이 논의됐다.

마을이 가진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의 질을 높이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마을 간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과 인증서가 수여되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7월 5곳의 후보지 중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군, 가정집 수도물 무료 수질검사

고창군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군민들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해 주는 '우리집 수도물 안심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집 수도물 안심제'는 관내 신청 가구 중 35가구를 선정해 매월 순차적으로 5가구 내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서비스로 이달의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등 10가지다.

가정집 수돗물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88)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신청인과는 일정 협의를 거친 후 수질검사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seun6685@newsis.com

고창군, 운곡습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 News1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는 14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진행됐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하는 제도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을 포함한 5개 지역(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

영아리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람사르습지도
시로 인증받기 위해 총사업비 1억2500만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
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제철 기자(jcpark@)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 발굴 워크숍 개최



(사진= 고창군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는 14일 웰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하는 제도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해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6개 기준 람사르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정보센터 설립, 지역관리위원회 설립을 충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2500만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준수 dynewsk1@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 개최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회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운곡습지 생태계 서비스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14일 웰파크시티 홀톤아트홀에서 열린 워크숍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 마을, 아산면 용계·독곡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곡습지의 가치와 공존'을 주제로 한 주민인식교육이 진행됐으며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이야기 발굴, 상징물 선정 및 운곡습지 보전을 위한 실천규약 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

원을 함께 발굴하는 과정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와 습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운곡습지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식 증진 및 6개 마을 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하는 제도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하여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향상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고창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6개 기준(△람사르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 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 제공 및 습지교육/정보센터 설립 △지역관리위원회 설립)을 충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7월 5곳의 후보지 중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